이해할 수 없는 사법부 판결

합당한 절차 거친 '멸빈' 판결 효력 정지
'종교 자율성 불인정' 판결선례로 남을 듯

사법부가 종교 내부 문제에 대해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11월25일 '2010 카합3344 징계처분 효력정지가처분'에서 신청인 정○○의 (조계종) 멸빈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2010가합97209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시까지 피신청인이 2010.4.1 신청인에 대하여 한 멸빈의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합당한 절차를 거친 종교 내부 사안에 대해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피신청인은 지난 4월1일 총무원 호법부의 징계요구에 따라 초심호계원에서 멸빈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피신청인이 이에 불복해 재심호계원에 상소를 제기했으나, 지난 8월25일 열린 재심호계원에서 멸빈 징계 처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의 비위가 있는 자를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라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임에 비추어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의 이유에 대해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있어 그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서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 스스로 밝힌 '불간섭 견해'에도 불구하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판결을 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피신청인은 지난해 사찰을 방문한 호법부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물론, (사찰)토지처분금 전용액을 임의 사용했으며, 총무원 기획실 감사국의 특별감사를 거부하는 등 승려법 제47조 제14호와, 제47조 제12호 등을 위반해 종단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멸빈 판결을 받았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재판부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종단에 끼친 해악이 큰 점이 고려되지 않았고, 종교단체 내부의 적법한 징계절차를 부정하는 것은 사법부가 '종교의 자율성''을 침해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국장 스님들이 지난 11월24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논산 군법당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중앙종무기관 국장단 군법당 기금 기탁

총무원장 스님 "솔선수범에 고맙다" 격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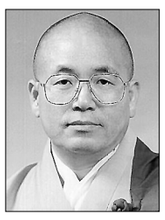
중앙종무기관에서 국장 소임을 보고 있는 스님들이 논산 군법당 건립 불사 모연에 동참했다. 총무국장 현담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국장단 스님들은 지난 11월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아름다운동행 이사장)에게 군법당 기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국장 스님들이 솔선수범해서 군법당 기금을 보시해줘 고맙다"면서 "논산 훈련소 호국 연무사 신축불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치하했다.

이성수 기자

초심호계원장 재원스님 선출

"매달 1회 이상 심판부 개정 계획"



정념스님의 사퇴로 공석이 된 초심호계원장에 재원스님이 선출됐다. 재원스님〈사진〉은 지난 11월24일 열린 초심호계원 제76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초심호계원장에 선출됐다.

초심호계원장 재원스님은 "매달 1회 이상 심판부를 개정할 계획"이라면서 "원만하게 초심호계원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초우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재원스님은 동국대와 해인승가대를 졸업한 후 영축총림 선원 등에서 안거를 성만했다. 현재 대구 마하사 주지 소임을 보고 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중앙선관위 신임 위원장에
범여스님 선출

'종회의원 후보 자격심사' 안건은 이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범여스님이 선출됐다. 지난 11월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34차 중앙선관위 회의에서 범여스님이 만장일치로 신임 위원장에 선출됐다. 선출은 규정에 따라 호선으로 진행됐다.

이날 선관위 회의에서는 제13교구 쌍계사 산중총회 본사 주지 후보자 자격심사에서 이의 없음이 확인됐다. 이어 진행된 쌍계사 산중총회 선거인 구성 명부 안건은 83명으로 확정했다.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자격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제21교구 원경스님, 제18교구 만당스님, 제10교구 법일스님에 대해서는 오는 2일 오후 2시 제235차 회의를 개최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중앙선관위원은 다음과 같다. 범여스님, 원오스님, 덕산스님, 삼묵스님, 선문스님, 자현스님, 등운스님, 수암스님, 일초스님. 이성수 기자

• 인터뷰

"위원들과 잘 상의해 본연의 역할 다하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범여스님〈사진〉은 "위원 스님들이 추천해 위원장 소임을 보게 됐다"면서 "위원 스님들과 잘 상의하고 협의해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위원장 범여스님은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자격'과 관련된 논란이 많았다"면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범여스님은 "특별법을 제정해 구족계 수지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면서 총무원장 스님과 중앙종회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계획을 피력했다.

위원장 범여스님은 "총무부와 호법부의 조회 결과에 근거해 선거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종단)밖에서 가져온 자료를 근거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여스님은 "위원 스님들이 승납도 오래되고 (종무행정) 경험도 풍부하기에 잘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선관위가 잣대를 정확히 대서, 다른 일로 인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수행자인 스님들의 양심에 맡겨 '원활한 선거업무'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범여스님은 상원스님을 은사로 1963년 선운사에서 사미계를, 1976년 해인사에서 고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대흥사 강원을 졸업한 후 내장사 주지, 총무원 사서실장, 재무부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운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사진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중앙승가대 사무국장 덕림스님 임명돼

학교법인 중앙승가대 사무국장에 덕림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중앙승가대 이사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11월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덕림스님에게 사무국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중앙승가대 사무국장 덕림스님은 1991년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4년 범어사에서 일타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주 남국선원 등에서 정진했으며, 익산 관음사 주지 소임을 보고 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현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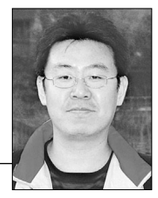
1960년 11월24일

11월24일은 이른바 비구승들의 대법원 진입사건이 일어난 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1960년 11월24일 조계종단의 스님들은 조계종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순교단을 조직하고 모두 죽음을 각오로 단식 농성하며 판결문이 낭독되는 대법원으로 몰려가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몸에 칼을 지니고 들어간 순교단 6명은 할복으로 결의를 나타내고 비구승 18명은 대법원 건물까지 들어가 항의했다.

320명의 비구·비구니들은 대법원 마당에서 농성하다 경찰서에 연행됐다. 당시 종단은 불안정했다. 대처측은 다시 사찰을 빼앗기 위해 때로는 마을 폭력배를 동원했으며 사법부는 절차상 문제를 들어 어렵게 출범한 종단을 부정했다. 당시 위기에 빠진 종단을 구하는 길은 순교밖에 없었다.

우리 종단은 1954년, 길게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된 정화운동으로 탄생했다. 1960년 11월19일부터 24일까지 조계사에서 전개된 대회는 그 긴 과정의 하나였다. 하지만 정화는 그 뒤 철저하게 잊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화운동이 펼쳐진지 60년이 다되어가는데 아직 기념사업회조차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다행히 몇몇 스님들이 기념사업회를 만들고 기념일을 제정하는 운동을 펼친다고 한다. 1954년부터 1962년 통합종단 출범 때까지 관련 자료를 모으고 증언을 채록할 계획이다. 한번도 정화운동 전반에 관해 범종단, 차원에서 연구하고 자료를 모은 적이 없다. 기념사업회 발족을 계기로 문도 차원을 넘어 전 종도가 나서 정화를 조명하고 연구하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오직 불교와 종단을 위해 몸을 던졌던 그 시대 스님들처럼 후학들도 계파도, 이해관계도 없는 다 같은 조계종도가 되기를 바란다.



박부영 기자
chisan@ibulgyo.com

종단 장학승 추가 선발 공고

종단은 '계율 및 불교윤리를 교육할 율학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종단 장학승 추가 선발을 진행합니다.
'계율 및 불교윤리 분야'에 대한 스님들의 관심과 많은 신청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선발 개요
▮지원 자격
- 국내·해외에서 계율관련 전공의 석사 및 박사 과정에 현재 재학중인 비구
- 국내·해외에서 계율관련 석사 및 박사과정에 진학을 희망하는 비구
- 2011년 구족계 수지 예정자도 가능함
- 정규 대학 졸업자 이상
▮인원 : 2명
▮접수기간 : 2010년 11월 26일~2011년 1월 14일까지
- 1월 중 1차 서류 통과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진행함.
▮결과발표 : 2011년 1월(조계종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선발분야 : 율장, 대승계, 청규, 불교윤리(윤리학)
▮우대 : 율원 졸업자(2011년 2월 졸업예정자도 가능)
계율 또는 윤리학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비구 대학원생

●지원 시기
▮현재 석사 및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선발된 학기의 등록금부터 지원합니다.
▮진학 희망자로 선발된 경우, 대학원 입학허가서를 제출한 학기부터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장학 지원 내용
▮장학승에 대하여 선발된 학위 과정 수료시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소정양식)
② 수학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③ 수행이력서(종단양식)
④ 재학증명서(입학허가서)
⑤ 학부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재학생의 경우 신청시점까지의 성적증명서)
⑥ 졸업증명서(학부 및 대학원)
⑦ 서약서(소정양식)
⑧ 추천서(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의 추천서)
⑨ 재정보증서
※ 장학승 선발에 필요한 제출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해주십시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접수처: 대한불교조계종 장학위원회(교육원)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E-mail: amita031@buddhism.or.kr
전화: 02)2011-1818

불기 2554(2010)년 11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장학위원회 위원장 보 광